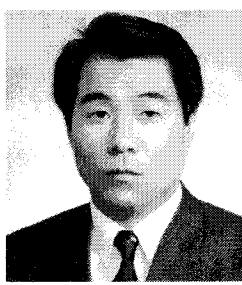


신년사

고품질화 통한 차별화 전략만이 살길



엄경섭 회장

희망찬 갑신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4월 협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생산자단체로서의 협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며 어느 해보다 분주했던 지난 1년! 안팎으로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많았던 템인지 다시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감회 또한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품질 경쟁력 제고 위해

최근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약의 수요증가는 물론 생명공학을 기초로 한 식물 유전자원분야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생약산업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국내생약농업 분야는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같은 측면에서 지난해는 우리생약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어느 해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식품원료용 수입약재의 변칙 및 국산과의 혼용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협회가 추진한 브랜드화사업은 국산한약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우 뜻깊은 시도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한약

시장개방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소득 작목 개발과 국산 한약재의 고품질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 수립이 급선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생약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국산 한약재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기자, 당귀, 황기, 작약, 맥문동 등 5개 약용작물에 대해 GAP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한편, GAP참여농가에 대해서는 토양·수질 검사, 중금속 및 잔류농약검사 비용 일체를 정부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e-마켓 활성화 주력

생산자단체인 우리협회도 이같은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 국산한약재의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전략을 수립해 나가고자 5개 약용작물에 대한 GAP를 시범 관리했으며 약 7,180kg의 GAP 약용작물(구기자, 당귀, 황기, 작약)을 최초로 생산, 제5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에 출품함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GAP제도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올부터는 GAP적용품목과 수량을 대폭 늘리고 농가와의 계약재

배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서 고품질 청정약재 생산을 통한 국산한약재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약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한약재 정보제공과 국산한약재 직거래 활성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를 오픈 운영중이며, 농경연에서 연구개발한 한약재 e-마켓플레이스도 지난 12월 23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생약인 여러분!

세상은 지금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고,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생약인도 조금은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국내 생약농업이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생약재배 농민들의 등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고품질의 청정약재를 생산 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도 나날히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산자 단체로 거듭나기를”

<임연학 고문>

새해아침 생약인이여!

우려와 기우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열린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살아남기 위한 지혜와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갑신년 새해입니다.

지난해는 제13대 회장 취임과 함께 다방면으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됐던 해입니다.

새로운 변화 모색기

우선 국산한약재의 고품질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약용작물 GAP를 최초 시범관리 함으로서 안전성이 검증된 고품질 약용작물을 생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97년 이후 중단됐던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를 재개함으로서 국산한약재의 우수성과 생산자단체로서의 생약협회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뤄오기만 했던 협회 홈페이지 구축함은 물론 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과제로 수행한 국산한약재 e-마켓플레이스 운영권을 가져옴으로서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대적 변화주제에 발맞춰 새로운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도매시장 운영에 역량 결집

집행부는 지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올 한해도 농경연이 구축하여 협회에 이관한 국산한약재 사업 도매시장(e-Marketplace)시스템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생산농민에게는 생산의욕고취와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협회가, 지난 30여년간 인정에 치우쳐 운영되던 생산자조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결집시키는 원년으로 삼아, 작물별 작목반 중심의 회원제 운영을 통해 전국의 모든 약초농가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생산자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주요품목 생산지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우수약용작물재배관리(GAP)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산한약재의 고품질화를 통한 차별화만이 생산농가는 물론 우리협회가 살아나갈 돌파구이기 때문입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생약인 모두 건강한 웃음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농림기술개발사업 2004년도 농업인개발과제 신규공모계획

1. 목적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에 농업인(단체)을 직접 참여시켜 농업기술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기하기 위함

2. 지원대상분야 및 기술

-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용기술
 - 농업용기자재 개발, 지역특수농법 등 실용기술 개발과제
 - 시험·연구가 미치지 못하는 국지적인 지역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기술과제
 -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충기술 개발과제
 - 체소, 과수, 화훼, 벼섯, 약용작물, 잡업, 축산, 농기계, 가공, 식량작물, 환경농업 등 관련과제
- 농업인(단체)이 직접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실용기술
-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기술

3. 공모(접수)기간

- 2003. 12. 29(월) ~ 2004. 1. 27(화)

4. 신청서 접수기관

- 해당지역 농업협동조합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5. 참여자격

- 농업인(단체)을 반드시 포함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전문학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협동연구팀

6. 과제당 연구비 및 연구기간

- 과제당 3천만원 이내, 연구기간은 1~2년 이내

7.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02-500-1795),
 - 농촌진흥청 원예축산과(☎ 031-299-2737~8)
 - 농림기술관리센터(☎ 02-2041-7513)

2003년 12월 29일

농림부장관·농촌진흥청장·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